

Characteristics of Gyosan Heo Gyun Cultural Festival in Gangneung and its Revitalization Plan

Choi, Ju-won

Graduate Stud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cjw10a@naver.com

Abstract

Objectives This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Gyosan Heo Gyun Cultural Festival' held every year in the Gangneung area and explore ways to revitalize it. Through this article, I hope that this festival will be known to outside tourists and become a familiar event.

Methods We looked at festivals targeting not only the Gangneung area but also people from other regions. And based on this,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the 'Gyosan Heo Gyun Cultural Festival' were presen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modernize and diversify the program, and a method to strengthen the promotion strategy is required. Finally, a strategy that can induce the interest of visitors through visual programs, etc. should be presented.

Conclusions 'Gyosan Heo Gyun Cultural Festival' must combine popularity with a modern sense while maintaining a literary depth. Through this, the 'Gyosan Heo Gyun Cultural Festival' will be able to develop into a sustainable cultural festival that represents Gangneung's identity and contributes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culture.

Keywords Revitalization of Gangwon-do, Gangneung, Gyosan Heo Gyun Cultural Festival, Local Festival, Local Person Festival, Local Festival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4.12.312.003

Received: Nov. 20. 2024 ; Reviewed: Dec. 10. 2024 ; Accepted: Dec. 20. 2024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강릉 지역 교산(蛟山) 허균 문화제의 성격과 활성화 방안*

최주원

목 차

1. 서론
2. 허균 문화제의 개요와 구성
3. 허균 문화제의 활성화 방안
4. 맺음말

1. 서론

이 글에서는 강릉 교산(蛟山) 허균 문화제(이하 허균 문화제로 약칭)의 성격,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된 ‘허균 문화제’의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허균 문화제는 조선시대의 개혁 사상을 대표하는 문인 허균(許筠)의 생애를 기리고, 그가 남긴 문학적 업적을 현대에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강릉 지역에서 매년 시행하는 지역 대표 축제이다.

허균 문화제는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회에서 강릉시와 함께, 1999년 10월 제1회 허균-허난설헌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선양사업회는 매년 10월에 문화제를 개최하였다가, 2009년부터는 두 인물에 집중한 선양 사업을 위해서 4월 초에는 난설헌 허초희 문화제를, 그리고 9월과 10월에 교산 허균 문화제를 구분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¹

2024년을 기준으로, 총 26회가 진행된 허균 문화제는 지금까지 허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허균 문화제는 그 취지나 역사

* 이 글은 5집에서 소개한 ‘K-지역문화제, 강릉 지역의 교산 허균(許筠) 문화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¹ 이 내용은 (사)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회 홈페이지 참조. www.hongkildong.or.kr

성에 비하여 현재 이에 상응하는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타 지역은 물론, 강릉 지역 내에서도 해당 행사의 존재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강릉 지역에서는 지역 인물, 지역 문화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양 문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선양 문화 사업이 지역의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문인 허균은 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인물이다. 따라서 허균 문화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훌륭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허균 문화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로서 ‘허균 문화제’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교산 허균 문화제의 개요와 구성

허균 문화제의 개요와 구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교산 허균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한다. 허균(許筠, 1569-1618)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사상가, 정치가로, 당시의 양반 사회와 성리학 중심의 가치관을 비판하며 새로운 사회적 이상을 추구한 개혁적 인물이다. 강릉에서 태어난 허균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가풍 속에서 문학적 재능을 키웠으며, 그의 아버지 허엽과 누이 허난설헌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문예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²

성인이 되어 문관으로 관직에 진출한 허균은 사회의 불평등과 계급 구조의 모순을 비판하고, 신분을 초월한 인간적 교류를 중요히 여겼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사상과 개혁적 성향은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와 부합하지 않았고, 여러 정치적 탄압과 갈등 끝에 반역 혐의로 처형되며 생을 마감했다.³

오늘날 허균의 고향인 강릉에서는 허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기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균의 생각을 복원하여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과 사상을 기리는 장소로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강릉 교산 허균 문화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허균의 삶과 사상을 되새기고, 그가 추구한 이상과 문학적 가치를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허균의 사상을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사)교산·난설헌선양회. <http://www.hongkildong.or.kr>

3 김기동 (2009). 향토문화축제 관광자원 활성화: 허균·허난설헌 축제를 중심으로. 산학경영연구, 22(1), 130-131.

자 구매한 수많은 책을 보관하기 위해 경포호수 인근에 별채를 비워 만든 도서관으로, 이러한 의미를 차용하여 호서장서각 서적 전시회, 책 플리마켓, 다섯 수레 솔숲 책방 프로그램 등 서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2.2. 교산 허균 문화제 구성

교산 허균 문화제는 1999년에 ‘허균-허난설헌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허난설헌 문화제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되어 진행되어왔으나, 2009년부터 허균 문화제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문화제의 운영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2009년부터 진행된 허균 문화제의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2009~2023년 허균 문화제 프로그램 구성표 (출처: 교산·난설헌선양회)

회	연도	프로그램
11	2009	교산 허균 추모 제례, 솔밭 음악회, 시 낭송회 (신종플루로 인해 일부 행사 취소)
12	2010	교산 허균 추모 제례, 백일장 및 홍길동 사생대회, 스토리텔링대회, 솔밭걷기 행사, 솔밭음악회, 시 낭송회,
13	2011	교산 허균 추모 제례, 백일장 및 사생대회, 교산 토론회, 학술 세미나, 들차회, 시 낭송회
14	2012	교산 허균 추모 제례, 백일장 및 사생대회, 학술 세미나, 토론대회, 학술 세미나, 솔밭 음악회
15	2013	교산 허균 추모 제례, 글짓기 대회, 학술 세미나, 시 낭독회, 솔밭 음악회, 홍길동 인형극, 홍길동 옷놀이 대회
16	2014	교산 허균 추모 제례, 글짓기 대회, 교산 문화 포럼, 솔밭 음악회, 홍길동 옷놀이 대회, 홍길동 인형극, 토크 콘서트, 솔밭 들차회
17	2015	교산 허균 추모 제례, 글짓기 대회, 학술 세미나, 홍길동 인형극, 솔밭 들차회, 홍길동 옷놀이 대회
18	2016	교산 허균 추모 제례, 글짓기 대회, 학술대회, 홍길동 인형극 초당 솔밭음악회, 호서장서각 책 이야기, 홍길동 만세 공연, 초당 솔밭 들차회,
19	2017	교산 허균 추모 제례, 전국 백일장, 학술 세미나, 홍길동 인형극, 솔밭들차회,
20	2018	교산 허균 추모 제례, 전국 백일장, 홍길동 인형극, 솔밭들차회, 교산 허균 전시회
21	2019	교산 허균 추모 제례, 전국 백일장, 허균 인문학 콘서트, ‘강릉부사납시오’ 뮤지컬 공연, 학술 세미나, 시 낭송 및 국악 연주, 솔밭들차회, 홍길동 인형극
22	2020	교산 허균 추모 제례, 전국 백일장, 학술 세미나, 허균 시 전시
23	2021~2022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24	2023	교산 허균 추모 제례, 전국 백일장, 학술 세미나, 홍길동 인형극, 솔밭 음악회, 솔밭 들차회, 작품 전시

2024년도 교산 허균 문화제는 <제26회 호서장서각 홍광이서(虹光異書), 무지개 책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2024년 10월 5일, 강릉시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교산 허균 문화제 구성은 학술적 프로그램, 체험 행사,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행된 교산 허균 문화제의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2024 교산 허균 문화제 일정표 (출처: 교산·난설헌선양회)

행사		시간	장소	비고
개막식	개막식 공연	09:00~10:00	마을입구 개막식당	초당취연 풍물패
	교산허균제례	10:00~11:30	생가 사랑채	성균관여성유도회
	교산허균 문학작가상 시상식			강릉지부 강원일보
교산허균전국글짓기한마당		10:00~12:00	솔밭 무대, 솔밭 일원	교산난설헌선양회
홍길동 인형극		13:30~14:00	솔밭 무대	솔향인형극단
교산허균학술세미나		14:00~15:30	생가 사랑채	교산난설헌선양회
교산허균시낭송콘서트		18:00~19:00	솔밭 무대	강릉시낭송연합회
솔밭달빛음악회		19:00~21:00	솔밭 무대	두드림엔터테인먼트
호서장서각 서적 전시회		개막식 11:30 전시회 10:00~17:00	초희전통차체험관 앞뜰	교산난설헌선양회
상시 프로그 램	교산허균시전시회	10:00~17:00	솔밭 일원	교산난설헌선양회
	솔밭들차회		솔밭 일원	임영다도회
	사행시짓기		솔밭 무대	교산난설헌선양회
	느리게 가는 우편		솔밭 무대	교산난설헌선양회
	초당두부 시식회		생가 인근	강릉초당두부
	교산허균 한복체험		생가 안채 및 솔밭 일원	숫대촌
	홍길동체험놀이		솔밭 일원	솔향문화교육협회
	난설헌:미술의상전시		생가 안채	김중숙 한복 연구가
	서적 프리마켓		생가 솔숲 공터	교산난설헌선양회

2024 교산 허균 문화제는 교산 허균의 숭고한 정신과 문학적 혼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학술적 행사와 가을 정취를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허균의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진행된 인형극과 허균의 문학작품을 낭독하는 교산 허균 시 낭송 콘서트, 국악과 전통무용을 통해 허균의 업적을 전달하는 솔밭 달빛 음악회 등과 같은 문학 기반 공연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홍길동 인형극은 대중들에게 허균의 사상과 이념을 친숙히 전달하기 위하여 기획된 공연이다. 허균의 대표작품인 소설 홍길동전을 인형이라는 도구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

다. 홍길동 인형극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인에게는 허균과 홍길동전의 사회적 의미와 허균의 전달하고자 했던 뜻을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림 2〉 2024년도 교산 허균 문화제 홍길동 인형극 사진 (출처: 교산·난설헌선양회)

솔밭 달빛 음악회는 〈홍광이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악회를 통하여 교산 허균의 행적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도서관이었던 호서장서각을 홍보하여 허균이 강조했던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 정신의 고양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국악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잊혀 가는 전통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솔밭 달빛 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공연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 2024 교산 허균 문화제 솔밭 달빛 음악회 일정표 (출처: 교산·난설헌선양회)

행사	시간	장소
대금 독주 청성곡	19:00 ~ 21:00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솔밭 야외무대
고성 오광대 영감-할미 과장 탈춤놀이		
춤산조 합주		
창작 판소리 ‘호서장서각’		
홍보가 ‘제비노정기’		
국악가요 합주 ‘월량대표 아적심’, ‘침밀밀’		
비비청 (장월중선 산조합주)		
창작 탈춤 ‘무지개 장서각’		
관객과 함께하는 탈춤 배우기		

솔밭 달빛 음악회의 특징으로는 호서장서각 건립 과정을 3막으로 구성함으로써 탈춤에 그 이야기를 담아 공연을 진행하여 호서장서각 건립 과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도왔다.

또한 한국의 전통 문양인 청사초롱 등을 활용해 분위기 있는 공연장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몰입을 유도했으며, 탈춤 대동놀이를 통하여 관객이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활용하여 솔밭 달빛 음악회를 통해 교산 허균 문화제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림 3〉 2024년도 제26회 교산 허균 문화제 스케치 영상 (출처: 교산·난설헌선양회)

이외에도 교산 허균 학술 세미나, 교산 허균 전국 글짓기 한마당, 호서장서각 서적 전시회와 같은 문화적 행사, 교산 허균 한복 체험, 초당두부 시식회, 서적 프리마켓과 같은 강릉 지역의 특산품 홍보, 전통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강릉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문화적 감수성 함양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허균 문화제의 활성화 방안

허균 문화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허균 문화제는 26년이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미비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교산 허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은 미비하고, 매년 반복되는 유사한 소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새로움과 신선함이 부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관광객과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허균 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허균 문화제는 홍보의 미비로 인해 지역 주민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외부 지역이나 전국적인 관심을 얻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허균과 허난설헌의 문학적 업적과 생애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공유하는 방식을 차용한다면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와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숏 폼 형태의 영상을 제작해 단시간에 시청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젊은 세대의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⁵ 더불어 문화 해설가, 혹은 문학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해 축제 소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관광객들이 문화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행사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현재 허균 문화제는 전통적인 프로그램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방안 또는 지능 정보기술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역사적·문학적 콘텐츠에도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접목하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그래픽 구현 등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방안이 자주 차용되고 있기에⁶, 허균 문화제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추가한다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예측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허균이 살았던 조선시대의 강릉을 재현해 보거나, 허균의 문학작품 속 장면으로 들어가 보는 등 허균의 생애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객들이 VR 기기를 통해 강릉을 가상 여행하거나, 허균의 작품 세계를 가상으로 탐험하는 경험을 제공하면 흥미롭고 몰입감 있는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를 활용하여 허균의 관련 정보 및 서적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AI 기술로 허균을 구현하여 관람객이 직접 대화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방문객이 문학적 인물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⁷ 이처럼 최신 기술을

4 변정민/최현규 (2024). 지역축제 발전 방향성 연구. 교방문화연구, 4(7). 75.

5 이상탁/김도희 (2024). K-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학연구, 48(7). 78.

6 김성빈 (2022). 역사 디지털 휴먼 유형에 따른 제작 기술 및 미디어 활용 특성 연구: 역사 미디어 콘텐츠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8), 325.

7 구선하 (2024). 아리랑 축제 활성화를 위한 가상현실(VR) 전시 공간의 개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9(2). 495.

접목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대에 신선한 경험을 제공해 문화제에 대한 호감도 향상 및 재방문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허균 문화제는 허균을 기리는 단순한 지역 축제에서 벗어나, 강릉의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1. 강릉 지역 문화제와의 비교 및 활성화 방안

앞서 3. 허균 문화제의 활성화 방안에서 다루었듯 문화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개선 방안의 강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은 중대한 문제로 작용한다. 특히 지역 문화 및 역사적 특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기존 사례를 통해 새로운 방안의 적용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양되어야 더욱 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여, 우선적으로 강릉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제를 중심으로 접목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방안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중 조선시대의 문인 심언광을 중심으로 한 '어촌 심언광 문학의 밤'(이하 심언광 문화제)과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 미디어 아트를 접목하여 진행된 '빛으로 만나는 유토피아'를 사례로, 허균 문화제의 활성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심언광 문화제의 개요와 구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촌 심언광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언광(沈彦光, 1487-1540)은 1487년 강릉에서 태어난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유명한 정치가였으나, 김안로(金安老, 1481~1537)를 조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화근이 되어 삭탈관직 된다. 강릉으로 낙향한 후 경포에 해운정을 짓고 은거하다 2년 후인 1540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심언광은 16세기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시문집인 『어촌집(漁村集)』을 통하여 850여 수의 한시가 전해지고 있다.⁸

심언광 문화제는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가을, 강릉 해운정에서 심언광의 시와 문학을 기리는 문화제로써, 이는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06년 강릉문화원에서 심언광의 저서 『어촌집』을 번역한 『국역 어촌집』을 발간하였고, 이를 계기로 강릉 지역에서 심언광에 관한 연구와 조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심언광 문화제 역시 그 연장선상 중 하나로 이어져 오고 있다.⁹ 이와 같은 전문적 연구 과정을 수반하여 지역 시민들과 외지인들

8 박영주 (2011).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특징. 한국시가문화연구, 27. 234.

9 이 내용은 강릉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ncc.or.kr>

에게 강릉 지역의 역사 인물인 심언광을 알리고, 그의 작품에 관해 연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사 ‘어촌 심언광 문학의 밤’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1회 어촌 심언광 문학의 밤이 2014년 10월 26일 심언광이 세운 해운정에서 개최되었으며, 문학인과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촌 한시 낭송과 어촌 문학 특강, 국악 연주 등 문학과 예술이 연계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¹⁰



〈그림 4〉 강릉 해운정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강릉해운정을 가득 채우는 다채로운 한시 문학콘서트
...
2024년 9월 12일 (목) 18:30~
강릉해운정



〈그림 5〉 제11회 어촌 심언광 문학의 밤 포스터 (출처: 강릉시청)

제11회 어촌 심언광 문학의 밤은 2024년 9월 12일, 우천으로 인하여 명주예술마당공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4〉 제11회 어촌 심언광 문학의 밤 일정표 (출처: 강릉 문화원)

행사	시간	장소
개회식 및 인사말	18:30 ~	강릉 해운정 (우천 시 명주예술마당 공연장 장소 변경)
어촌 한시에 대한 해석과 유쾌한 토크쇼		
어촌 심언광 한시 낭송 대회 본선		
어촌 한시를 재해석한 음악 공연		
시상식 및 폐회식		

¹⁰ 이 내용은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참조. <https://jinju.grandculture.net/gangneung>

심언광 문화제의 주요 특징은 관객 참여를 중심으로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다. 제1회부터 제11회 심언광 문화제까지의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¹¹

관객이 한시를 직접 선정하여 낭독하는 ‘한시 낭송회’, 청중과의 소통을 통해 어촌 한시를 분석하는 ‘토크쇼’는 어촌의 생애와 작품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그 중심적 역할로 관객 참여를 배치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어촌 한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국악과 랩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이는 ‘음악 공연’, 어촌에 대한 정보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퀴즈쇼’ 등 심언광 문화제는 전통적 소재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객의 흥미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심언광 문화제와 허균 문화제를 비교 분석하자면, 허균 문화제는 허균 문학 자체에 대한 집중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심언광 문화제는 심언광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심층적 탐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또한, 허균 문화제가 국악과 전통예술을 주축으로 공연을 구성하는 것에 비해, 심언광 문화제는 전통적인 요소에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진행하여 젊은 세대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무엇보다 문학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관객 참여 방식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감상 위주의 문학 콘텐츠가 아닌 참여형 복합 콘텐츠로서의 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허균 문화제에 실 적용 한다면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고안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심언광 문화제가 참여형 문화제로의 방법을 강조했었다면,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진행된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전시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강릉 지역 문화유산과 현대 기술을 연계하여 현대적 흐름에 맞춰 발전한 문화제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는 조선시대 지방 행정 중심지로서 강릉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중요한 유적지이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는 938년(고려 태조 8년)에 건립되었으며, 1894년(조선 고종 31년)까지 지방 통치와 행정을 담당하던 관아 건물로 강원도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 대도호부 관아는 칠사당, 객사문과 같이 당시 건축 양식과 배치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¹² 현재 강릉 대도호부 관아는 복원과 보존 작업을 통해

11 이 내용은 강릉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ncc.or.kr>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방문객에게 강릉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전시는 강릉 대도호부 관아라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유적지로 표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를 접목하여 하나의 복합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켰다. 이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창적인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강릉 대도호부 관아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2023년에 개최된 '빛으로 만나는 강릉의 신화'는 강릉의 전통적인 설화를 현대적 기술로 구현하여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험을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했다. 대도호부 관아라는 역사적 공간을 첨단 미디어 아트와 연계하면서 강릉의 문화적 뿌리를 새롭게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어 2024년에 진행된 '빛으로 만나는 유토피아'는 강릉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인 율곡 이이와 허균의 철학적, 문학적 상상력을 주제로 삼았다. 이 전시는 조선시대의 이상향과 유교적 사상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하여, 전통적 이념과 현대적 기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¹³ 관람객은 율곡 이이가 꿈꿨던 유교적 이상 사회와 허균의 문학적 유토피아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체험하며 조선시대의 철학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림 6〉 2023, 2024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 포스터 (출처: 강릉 미디어 아트)

12 조해진 (2019). 지역문화유산의 콘텐츠제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강릉대도호부관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4), 502.

13 이 내용은 강릉 미디어 아트 홈페이지 참조. <http://gnma.or.kr>

해당 문화제는 비록 2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강릉 대도호부 관아를 단순한 유적지에서 벗어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강릉의 역사적 인물과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적 예술 콘텐츠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강릉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해당 문화제는 홈페이지 제작,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및 전문가 인터뷰 등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현대 기술과 성공적으로 접목해 낸 성공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라는 문화유산에 미디어 아트를 활용했듯이, 허균 생가에도 미디어 아트 활용 콘텐츠를 허균 문화제에 도입한다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유용한 접근을 위하여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시행한다면 허균 문화제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2. 타 지역 문화제와의 비교 및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강릉 지역 내 문화제의 프로그램 구성 및 활용 방안을 통하여 허균 문화제의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면, 지금부터는 특정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제의 성공적 사례를 통해 문화제의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예시로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매년 4월 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기념하여 열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문화제는 1961년 '온양문화제'로 시작되어 1978년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에 맞춰 축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며,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의 연혁 (출처: 아산문화재단)

회	연도	축제 명칭
1	1961년	제1회 온양문화제 개최
2	1962년~1991년	제2회~제30회 온양문화제
3	1992년	온양아산문화제로 명칭 변경
4	1992년~1997년	제31회~제36회 온양아산문화제
5	1998년	온양문화제로 명칭 변경

6	1998년~2003년	제37회~제42회 온양문화제
7	2004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로 명칭 변경
8	2010년	제43회~제48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9	2011년~2013년	구제역으로 인한 취소
10	2014년	제50회~제52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11	2015년~2016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취소
12	2017년	제54회~제55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13	2018년	제56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14	2019년	제57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충무공 탄신 기념 전야 행사
15	2020년~2022년	제58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16	2023년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17	2024년	제59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의 슬로건은 ‘성웅 이순신, 세상을 품다’로서 축제 기간 동안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독창적인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¹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승전 행렬 퍼레이드, 무과 재연, 전통 무예 시범, 역사 강연, 축하 공연, 멀티미디어 불꽃 쇼 등이 있다. 승전 행렬 퍼레이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를 재현함과 동시에 행렬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여 축제의 역동성을 더한다. 무과 재연은 조선시대의 군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통 무예 시범과 결합하여 장군의 군사적 업적을 생생히 보여준다. 축하 공연과 불꽃 쇼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관람객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이와 더불어 학술 세미나와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애국심을 학습고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학술 강연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는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 이 내용은 아산문화재단 참조. <https://culture.asan.go.kr>



〈그림 7〉 2024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포스터 (출처: 아산문화재단)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허균 문화제는 역사적 인물을 기리고, 그들의 업적과 정신을 재조명하여 지역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두 축제 모두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는 참여형 문화관광축제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성과 참여 유도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군사적 업적과 애국애족 정신을 중심 테마로 대규모 참여형 행사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행렬 퍼레이드'와 '불꽃 쇼' 등 화려한 요소가 부각되는 비주얼 프로그램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대표 축제라는 당위성과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학술 세미나 및 토크 콘서트 등 학술형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외부적으로는 관람객 유치를 위한 대형 체험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는 학술 가치 향상 및 애국애족 정신의 학습이라는 양가적 요소를 채용하고 있다.

반면 허균 문화제는 대형 프로그램 또는 비주얼 프로그램의 차용이 아닌, 문학적 성과와 예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정적인 문화제이다. 문화제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허균의 문학적 업적을 중심으로 시 낭송 대회, 백일장, 전통 음악 공연 등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허균의 문학작품 및 조선 중기의 문학적 풍경을 조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학적 깊이를 강조하는 만큼 대중적 흥미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미흡하여 홍보 방안이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비주얼 프로그램의 부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의 접합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허균 생가 및 문화제 행사장에 조명과 디스플레이 등을 활용하여

'방문해 보고 싶은 문화제'를 조성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제 활성화에 이점이 될 것이다.

4. 마무리와 과제

허균 문화제는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개혁가였던 허균의 문학적 업적과 사상을 조명하기 위해 매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문화제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해당 문화제는 허균이라는 강릉의 대표적 인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 대중적 인지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허균 문화제는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친숙한 행사로 자리 잡았으나,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인지도가 부족하며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현대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매년 반복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현대적 요소가 채택된 프로그램의 부재는 젊은 세대와 외부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허균 문화제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현대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허균의 문학작품 세계를 디지털로 재현하거나, AI의 도입을 통한 가상의 허균과 관람객의 실시간 소통 프로그램, 허균의 개혁적 사상을 반영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허균의 문학작품을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 상영, 미디어 아트 등의 활용이 그 예시가 될 것이다.

둘째, 허균 문화제의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숏 폼 콘텐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잠재 관람 계층에게 해당 문화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허균 문화제를 다채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축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비주얼 프로그램 등의 단시간에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진행되었던 방식과 같이 강릉 대표 문화유산인 허균 생가에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비주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홍보의 용이성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흥미를 유도하여 직접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허균 문화제는 문학적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성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균 문화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강릉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허균 문화제는 강릉의 자부심을 알리는 동시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o, Hae-jin. (2019). A Study on Utilization of Contents Production by Local Culture Heritage: Focusing on the Case of Gangneung-Daedohobukwan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5(4).
- Goo, Sun-ha. (202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VR) Exhibition Space to Revitalize Arirang Festival. *Design Research (DR)*, 9(2), 484-496.
- Kim, Seong bin. (2022). A Study on Production Technology and Media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istorical Digital Human Types: Focus on the Use Cases of Historical Media Content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7(8). 319-326.
- Lee, Sang-tak & Kim, Doh-hee. (2024). Strategies to Revitalize Local Tourism by Utilizing K-Contents: Focusing on the Case of Chuncheo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8(7). 65-88.
- Nam, Mi-hee. (2023). Current Status of Asan Seongwoong Yi Sun-sin Festival Using Local Heritage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Programs. *Journal of Martial Arts*, 17(3).
- Park, Young-ju. (2011).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him Eon-gwang's Poetry. *The Studies in Korean Poetry and Culture*, 27.

강릉 지역 교산(蛟山) 허균 문화제의 성격과 활성화 방안

최주원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강릉 지역에서 매년 시행되는 ‘교산 허균 문화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탐색해 본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외부 관광객들에게 본 축제가 알려지고 친숙한 행사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연구 방법 강릉 지역만이 아니라 인물을 대상으로 한 다른 지역의 축제를 살펴보고, ‘교산 허균 문화제’의 특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현대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며, 홍보 전략을 강화할 방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결론 허균 문화제는 문학적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성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균 문화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강릉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강원도, 강릉, 허균 문화제, 지역 축제, 지역 인물 축제, 지역 축제의 활성화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